*영어어문교육 11*권 4호 2005년 겨울

연어능력이 대학생들의 영어능숙도와 영작문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 윤 정
(부경대학교)

Kim, Yun-Jeong (2005). The effects of collocational competence on college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and writing abilit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4), 189-2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nowledge and use of English collocations in their relation to Korean college students' general English proficiency and writing abilities. Participants in the present study were 203 Korean college students. Their knowledge and use of English collocations were measured by a self-designed collocation test and an essay writing tes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s' knowledge of collocations according to their general English proficiency. Students' performance in the collocation test increased as their level of proficiency increased.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s' knowledge of collocations according to their writing abilities. Students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the collocation test as their level of writing abilities increased.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s' use of collocations according to their writing abilities. Students' collocation use in the writing test increased as their level of writing abilities increased. Fourth, there wa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knowledge of collocations and their general English proficiency and between the students' use of collocations and their writing abilities.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findings.

[collocation/general English proficiency/writing abilities, 연어/영어능숙도/영작문 능력]

Ⅰ. 서론

언어 학습의 주된 목적은 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기 위함이다. 언어를 구성하는 기초 요소는 어휘이므로 의사소통을 위해 어휘를 알아야한다. 지금까지 외국어 교수·학습에서 어휘영역은 주요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어휘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Coady & Huckin, 1997; Schmitt, 2000; Zimmerman, 1997).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가 중요하다면 어떤 어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이 질문에 관해 일치하는 견해는 없다.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는 상당한 수준의 문법실력을 갖추고도 어휘력은 약하다. 어휘와 관련하여 영어 학습자는 각 단어가 가진 의미파악보다는 실제상황에서 어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다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학습자들이 단어를 단지 암기함으로써 영어 어휘를 배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배운 것은 수동적인 어휘인데 이것은 학습자들의 번역을 도와줄지 모르지만, 발화를 도와주지는 못한다.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안다고 해서 모국어화자처럼 말하거나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휘와 의미의 연결만이 어휘 학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개별 어휘가 다른 어휘와 어떻게 이루어져 쓰이는지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명한 점은 개별 어휘의 의미 학습 못지않게 어휘 선택 또는 어휘간 결합에 대해 학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어휘간 결합 중에서, 임의적인 빈도보다는 더 많은 빈도로 자연스럽게 같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모국어화자의 기억속에 잘 연결되어있고 덩어리로써 재현된다. 영어 모국어화자들은 말을 할 때와 글을 쓸 때 일련의 문법규칙과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덩어리(ready-made chunks)를 사용한다. 서로 연관되어있고 이미 조립된 덩어리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연어(colloca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powerful과 strong의 의미를 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한 차'라는 뜻을 나타낼 때, tea는 powerful보다는 strong과 결합하여 strong tea라고 쓰이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개별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모국어 화자는 수많은 이미 만들어진 덩어리로 그리고 특정 문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를 결합할 수 있다. 모국어 화자는 일반적으로 연어를 직관적으로 사용한다. 모국어 화자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연어지식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생동안 연어에 대한 입력을 충분히 받아 연어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국어 학습자의 기억 속에 영어 단어는 연어로 연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연어가 종종 발화된다. 따라서 부적절한 연어의 사용은 문장이 문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할지

라도 모국어 화자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연어사용의 오류는 문법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 개별 단어들의 결합관계, 즉 연어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어능력의 차이는 모국어화자와 비모국어 화자를 구분 짓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외국어학습에 있어 주요한 과제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의 일반적인 영어능숙도 및 영작문 능력을 기준으로 한 영어 연어지식과 연어사용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연어지식과 연어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습자의 일반적인 영어능숙도에 따라 연어지식에 차이가 있는가?
2. 학습자의 영작문능력에 따라 연어지식에 차이가 있는가?
3.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에 따라 영작문 중 연어사용 총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4. 학습자의 일반적인 영어능숙도, 영작문 능력, 어휘학습방법 중 어느 것이 연어지식과 연어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부산에 위치한 P대학교 실용영작문반 및 초급영작문반 수강생으로 한정한다. 둘째, 학습자의 일반적인 영어 능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TOEIC시험으로 한정한다. TOEIC시험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이현우와 이소영, 2004), 일반적으로 TOEIC시험은 학습자의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OEIC시험의 결과를 학습자의 일반적인 영어능숙도 평가기준으로 이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주제로 어휘적 연어를 선택한 이유는 성인 외국어학습자가 일반적으로 문법적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에서보다는 어휘적 연어에서 더 많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어 연구는 대개 '동사+명사'형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연어의 다섯 가지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연어사용을 평가하는데 쓰기 자료, 즉 영작문시험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위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를 위한 표본 집단이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연어지식 및 사용능력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연어지식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 연어를 배제한 채 어휘적 연어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연어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연어의 대표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연어사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쓰기 자료에 국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연어의 중요성

교수방법론의 역사가 언어 사용과 용법사이에서 교차했듯이, 어휘도 교수방법론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고 이차적인 지위를 지니기도 했다. 언어학습에서 어휘영역은 시대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Carter & McCarthy, 1988; Zimmerman, 1997).

다행히 의사소통중심교수법(CLT)에서 의미를 강조하면서 어휘지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휘 교수의 방법과 전략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Coady & Huckin, 1997; Zimmerman, 1997).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Lewis(1993)가 어휘교수법(Lexical Approach)을 주창하면서 어휘지도에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어휘교수법은 의미중심의 의사소통을 언어학습의 중심에 두고, 의미를 전달하는 어휘 지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어휘는 문법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문법이 없다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지만, 어휘가 없다면 아무 것도 전달될 수 없다”(Lewis, 2000, p. 8)는 Wilkins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어휘접근법은, 이제까지 많은 영어학습자들이 해 온 것처럼 영어 단어 하나에 우리말 뜻이 하나 결합된 정의 위주의 단어 암기가 아닌 그 단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표현들과 그 단어와 친한 단어들에 관한 정보까지를 함께 제공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 접근법의 등장은 어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연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또한 최근 들어 방대한 양의 코퍼스(corpus)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어휘연구는 획기적인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문법과 어휘를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단어들이 나타나는 빈도, 함께 나타나는 단어, 언어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Schmitt, 2000). 특히 공기하는(co-occur) 단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언어의 상당 부분이 미리 조립된 어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지고 있고, 그 중 핵심 부분인 연어가 최근 어휘연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Lewis, 2000; Sinclair, 1991).

이와 같이 어휘교수법의 등장과 코퍼스 언어학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언어 연구를 통해 연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언어학습에서 연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어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의 새로운 결합을 안다는 것이다(Nation, 2001). 따라서 언어학습, 특히 어휘 학습에서 연어의 역할이 크다고 보며,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연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연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연어

'collocation'이라는 용어는 collocare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com(together) + locare (to place)의 결합으로 생긴 말이다. 따라서 collocation의 동사인 collocate는 'to place together'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같이 쓰이는 단어를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연어(連語)'라고 부른다. 여러 학자들이 연어에 관해 기술한 것은 다음과 같다. Carter와 McCarthy(1988, p. 32)는 연어를 '서로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로 기술하였고, Firth(1957, p. 20)는 '함께 오는 단어에 의해 그 단어를 아는 것', Lewis(2000, p. 127)는 '단어들이 공기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이처럼 연어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 Firth(1957)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Firth(1957)가 함께 어울리는 단어를 통해 그 단어를 알게 될 거라고 언급함으로써, 연어라는 개념이 두드러지게 되고 점점 중요한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연어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차이는 있지만 핵심 내용은 단어들이 서로 공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 단어와 어떤 단어가 전형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어에 대한 여러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어를 '특정 단어를 중심으로 자주 사용되는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어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연어에 대한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연어를 다양하게 하위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Carter와 McCarthy(1987)는 '제약성(restrictedness) 여부'를 기준으로 연어를 '가장 제약적인 연어', '준제약적인 연어', '비제약적인 연어'로 분류하고 있다. Howarth(1998)는 연어를 하나의 연속체(collocational continuum)로 보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범주의 연어가 포함된다: 자유결합, 제약적 연어, 비유적 관용어, 순수 관용어. Hill(2000)은 연어의 강도(collocational strength)에 따라 특이연어, 강연어, 중강연어, 약연어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연어에 대한 유형 분류는 Benson, Benson과 Ilson(1997)이 'BBI 영어 어휘 결합사전(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을 편찬하면서 설정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Benson 등(1997)은 연어 구성을 크게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로 분류하였다. 문법적 연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내용어와 전치사, 또는 부정사나 절과 같은 문법 구조로 구성되는 구이다. 어휘

적 연어는 기능어를 포함하지 않고 내용어로만 구성된 것이다. 본 연구는 어휘적 연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 연어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연어'와 '어휘적 연어'란 용어는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국내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외국에서의 연어 연구는 매우 활발한 편이며,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어 및 관용어, 상투어구를 포함한 관용표현을 언어 이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언어학적 접근(Cruse, 1986; Firth, 1957; Halliday & Hasan, 1976)이 있고, 사전 편찬학적 관점에서 어휘들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한 연구(Benson et al., 1997; Cowie, 1981) 및 개별 언어들 간의 비교 연구(Bahns, 1993; Farghal & Obiedat, 1995; Gabrys-Biskup, 1992)도 진행되어 왔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서 효과적인 연어 교육을 위한 연구(Bahns & Eldaw, 1993; Gitsaki, 1999; Howarth, 1998; Nattinger & Decarrico, 1992; Nesselhauf, 2003)도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으며, 코퍼스언어학에서는 대량의 말뭉치에서 의미있는 결합의 추출을 위한 이론적 연구(Sinclair, 1991)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어에 관한 연구(권혁승, 2000; Kim, 2004; Park, 2003)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직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예비 연구

예비 연구는 2004년 10월 첫째 주에 부산에 위치한 P대학교에서 실용영작문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연구에 쓰인 도구는 설문지와 5가지 유형의 50문항으로 구성된 연어시험과 영작문시험이었다. 예비연구의 목적은, 설문지의 경우 질문의 애매성 여부를 알아보고, 연어시험의 경우는 실험문항 중 오답을 유도하는 문항이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영작문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비 연구 결과, 설문지의 경우에는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질문을 수정하였고, 연어시험의 경우, 연어시험의 신뢰도는 양호하였으나(α=.75) 정답율과 응답의 분포도, 오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제거, 수정, 보완하였다. 영작문시험의 경우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2. 본 연구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4년 10월 셋째 주에 3일간 부산에 위치한 P대학교에서 실용영작문과 초급영작문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용영작문 4개 반 137명과 초급 영작문 3개 반 93명 총 230명을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 대상자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은 총 230명 중 유효한 정보를 가진 학생은 203명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설문지와 학습자의 연어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연어시험(collocation test)(부록 참조)과 학습자의 쓰기 능숙도 및 연어사용을 평가하기 위한 영작문시험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배경지식 및 일반적인 영어 능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나타난 항목으로는 첫째, 학과 및 남녀 성별, 둘째, 영어권 국가에 체류한 경험 유·무 셋째, 일반적인 영어 능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TOEIC시험점수급간을 주고 해당되는 칸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넷째, 영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네 가지 보기 -문법, 어휘, 발음, 문화-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다섯째, 영어로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전 두 가지를 선택하여 우선순위를 표시하게 하였다. 여섯째, 어휘학습방법으로 단어위주인지 연어위주인지를 고르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연어지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어시험을 실시하였다. 연어시험은 하나의 영어문장을 주고 해당되는 연어에 밑줄을 긋고 밑줄 친 연어표현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여 해당란에 표시하고 만약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영어 단어를 쓰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Benson 등(1997)이 분류한 어휘적 연어의 7가지 유형 중 5가지 유형의 연어를 대상으로 하였다(제1유형: 동사+명사, 제2유형: 형용사+명사, 제3유형: 명사+동사, 제4유형: 부사+형용사, 제5유형: 부사+동사). 예비 연구를 거쳐 본 연구를 위한 연어시험 문항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어휘의 빈도수를 고려하였다. 둘째, 단어 수 및 문장 길이를 고려하였다. 단어 수는 10단어를 넘지 않도록 했고 문장은 한 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셋째, 비록 영어에서 적절한 허용가능한 연어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Gairns & Redman, 1985), 원어민

4인으로부터 내용평정을 통해 각 유형마다 모국어화자가 친숙하게 느끼고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사용하고 연어표현에 의견일치를 보인 연어 문항을 선정하였다. 넷째, 문항의 적절함과 부적절함의 비율은 2:3으로 하였다. 다섯째,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상: 중: 하 분포가 30%:50%:20%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여섯째, 문항의 용이도 및 오답의 매력도를 고려하여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5가지 유형 각각 10문항 총 50문항 연어시험문항으로 구성하였다(신뢰도 α=.79).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영작문시험을 사용하였다. 영작문시험의 주제는 자기 고향에서 1년간 머물 예정인 외국인 친구에게 고향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다. 주거환경, 날씨, 숙박, 음식, 교통, 쇼핑, 교육시설, 문화, 유적지, 음식점, 관광명소 등을 묘사하도록 하고,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대상자는 총 230명이었다. 그러나 TOEIC시험점수를 포함한 설문지작성과 연어시험, 영작문시험의 모든 연구 도구를 작성한 실험대상자는 전체 230명 중 20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 SPSS version 11.0과 Amos 4.0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1~5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하였다. 연구문제 6을 알아보기 위하여 Amos 4.0 에 의한 경로분석 및 인과관계 분석을 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TOEIC점수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영어 능숙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TOEIC 점수 730점 이상은 영어 능숙도 상 집단, 550점 이상 729점 이하는 영어 능숙도 중 집단, 549점 이하는 영어 능숙도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4인으로부터 내용평정을 통해 각 문항별 적절성 및 정답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어시험 실시 후 학생들의 답을 분석한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답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원어민 2인으로부터 정답 및 오답이 될 수 있는 답을 검토하여 추가하였다. 연어시험의 결과를 보고 학습자의 연어지식을 판단하였다. 이 연어지식을 이해력과 표현력으로 세분하였다. 문항의 적절성 여부만을 보고 적절성 판단을 옳게 한 경우는 연어지식 이해력으로 보았고,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옳게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단어를 쓴 경우를 연어지식 표현력으로 보았다.

5가지 유형의 각각 10문항 총 50문항 연어시험의 신뢰도는 α=.79이었다. 이 중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각 유형에서 한 문항씩 제거한 후(7, 18, 28, 40, 50번 문항) 측정한 연어시험의 신뢰도는 α=.82였다.

영작문 시험 채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첫 번째는 총체적 채점(holistic scoring)이고 두 번째는 분석적 채점(analytic scoring)이다. 첫 번째로 일

반적으로 영작문 시험 채점에 많이 쓰이는 총체적 채점 방법으로 성적을 산출하였다. 원어민 2인이 CBT TOEFL의 TWE(Test of Written English) 성적기준에 따라 1~6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원어민 2인의 성적을 평균하여 영작문 총체적 채점점수로 하였다. 원어민 채점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채점자간 .81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학습자의 쓰기 능숙도 집단 분류는 평균점수에 따라 백분율해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상·중·하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 분석적 채점으로 영작문 성적을 산출하였다. Omaggio(2001, p. 336)의 ESL Composition Profile의 항목과 평가기준을 참고하였다. 외국어학습자인 경우를 감안하여 각 항목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수정된 5가지 항목을 선정했다. 5가지 평가기준으로는 내용, 구성, 연어, 문법, 기법으로 각각 4점씩 2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이 채점 기준표에 의해 두 명의 채점자가 영작문 채점을 하였다. 한 명은 연구자 본인이며 다른 한 명의 채점자는 영어 교육 석사학위 소지자로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평가자의 채점 결과의 평균 점수를 학습자들의 영작문 분석적 채점점수로 사용한다. 채점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채점자간 .83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학습자의 쓰기 능숙도 집단 분류는 평균점수에 따라 백분율해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상·중·하로 분류하였다.

Ⅳ.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1. 연구문제 분석

1) 연구문제 1

학습자의 일반적인 영어능숙도에 따른 연어지식(표현력/이해력)에 차이가 있는가?

연어지식 표현력 및 이해력을 영어능숙도에 따라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과 Scheffe 검증을 하였고,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영어능숙도에 따른 연어지식 표현력

연어지식	영어능숙도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평균제곱	F	Scheffe
표현력	상(66)	67.16(5.05)				
	중(73)	62.49(3.95)	2.34.81	1017.40	58.55**	상>중>하
	하(64)	59.31(3.30)				
이해력	상(66)	76.24(3.43)				
	중(73)	71.98(4.05)	1824.70	912.35	62.53**	상>중>하
	하(64)	68.78(3.92)				

**p<.01

표 1에 의하면, 연어지식 표현력에서는 영어능숙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significant difference)를 보였고, 영어능숙도 상 집단은 67.16, 중 집단은 62.49, 하 집단은 59.31로 그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영어능숙도 상 집단의 연어지식 표현력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어지식 이해력에서도 영어능숙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영어능숙도 상 집단은 76.24, 중 집단은 71.98 하 집단은 68.78로 그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영어능숙도 상 집단의 연어지식 이해력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연어지식 표현력에서 영어능숙도 상 집단과 중 집단, 영어능숙도 상 집단과 하 집단간, 영어능숙도 중 집단과 영어능숙도 하 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능숙도가 높을수록 연어지식 표현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어지식 이해력에서도 영어능숙도 상 집단과 중 집단, 영어능숙도 상 집단과 하 집단간, 영어능숙도 중 집단과 영어능숙도 하 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능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어지식 이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문제 2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총체적/분석적 채점)에 따라 연어지식(표현력/이해력)에 차이가 있는가?

먼저, 연어지식 표현력 및 이해력을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총체적 채점)에 따라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과 Scheffe 검증을 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표 2
영작문 능력(총체적 채점)에 따른 연어지식

연어지식	영작문 능력 (총체적 채점)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평균제곱	F	Scheffe
표현력	상(73)	65.50(5.74)				
	중(66)	62.98(4.22)	964.99	482.49	21.23**	상>중>하
	하(64)	60.18(3.99)				
이해력	상(73)	73.72(4.49)				
	중(66)	73.12(4.25)	526.21	263.10	12.48**	상, 중>하
	하(64)	70.01(5.00)				

**p<.01

표 2에 의하면, 연어지식 표현력에서는 영작문 능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은 65.50, 중 집단은 62.98, 하 집단은 60.18로 그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의 연어지식 표현력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어지식 이해력에서도 영작문 능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은 73.72, 중 집단은 73.12 하 집단은 70.01로 그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의 연어지식 이해력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연어지식 표현력에서 영작문 능력 상 집단과 중 집단간, 상 집단과 하 집단간, 중 집단과 하 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작문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어지식 표현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어지식 이해력에서 영작문 능력 상 집단과 중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영작문 능력 상 집단과 하 집단간, 중 집단과 하 집단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어지식 표현력 및 이해력을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분석적 채점)에 따라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과 Scheffe 검증을 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영작문 능력(분석적 채점)에 따른 연어지식

연어지식	영작문 능력 (분석적 채점)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평균제곱	F	Scheffe
표현력	상(63)	65.88(5.73)				
	중(76)	63.22(4.51)	1135.95	567.97	25.97**	상>중>하
	하(64)	59.92(3.57)				
이해력	상(63)	74.00(4.35)				
	중(76)	73.21(4.74)	665.63	332.81	16.32**	상, 중>하
	하(64)	69.73(4.38)				

**p<.01

표 3에 의하면, 연어지식 표현력에서는 영작문 능력(분석적 채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은 65.88, 중 집단은 63.22, 하 집단은 59.92로 그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의 연어지식 표현력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어지식 이해력에서도 영작문 능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은 74.00, 중 집단은 73.21 하 집단은 69.73으로 그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의 연어지식 이해력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연어지식 표현력에서 영작문 능력 상 집단과 중 집단간, 상 집단과 하 집단간, 중 집단과 하 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작문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어지식 표현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어지식 이해력에서 영작문 능력 상 집단과 중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영작문 능력 상 집단과 하 집단간, 중 집단과 하 집단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1)에서 분석한, 영작문 능력(총체적 채점)에 따른 연어지식 표현력과 이해력과 똑같은 결과를 보였다.

3) 연구문제 3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총체적/분석적 채점)에 따라 영작문 중 연어사용 총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먼저,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총체적 채점)에 따라 영작문 중 연어지식사용 총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영작문 능력(총체적 채점)에 따른 연어사용 빈도수

	영작문 능력 (총체적 채점)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평균제곱	F	Scheffe
연어사용 총빈도수	상(73)	8.08(3.69)	577.84	288.92	32.81**	상>중>하
	중(66)	5.71(2.61)				
	하(64)	4.00(2.32)				

**p <.01

표 4에 의하면, 영작문 중 연어사용 총 빈도수에서 영작문 능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은 8.08, 중 집단은 5.71, 하 집단은 4.00으로 그 빈도수가 나타났으며,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의 연어사용 총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영작문 능력 상 집단과 중 집단간, 상 집단과 하 집단간, 중 집단과 하 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작문능력이 높을수록 연어사용빈도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분석적 채점)에 따라 영작문 중 연어지식사용 총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영작문 능력(분석적 채점)에 따른 연어사용 빈도수

	영작문 능력 (분석적 채점)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평균제곱	F	Scheffe
연어사용 총빈도수	상(63)	9.32(3.03)	1138.63	569.31	94.86**	상>중>하
	중(76)	5.49(2.25)				
	하(64)	3.42(1.99)				

**p <.01

표 5에 의하면, 영작문 중 연어사용 총 빈도수에서 영작문 능력(분석적 채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은 9.32, 중 집단은 5.49, 하 집단은 3.42로 그 빈도수가 나타났으며, 영작문 능력 상 집단의 연어사용 총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영작문 능력 상 집단과 중 집단간, 상 집단과 하 집단간, 중 집단과 하 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작문 능력이 높을수록 연어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문제 4

학습자의 일반적인 영어능숙도, 영작문 능력, 어휘학습방법 중 어느 것이 연어지식과 연어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학습방법, 영어능숙도, 영작문 능력이 연어지식 및 연어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mos4.0에 의한 경로분석 및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n=203)]에 대한 추정된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값은 5.007(*df*=1), NFI값은 .998, TLI값은 .982, CFI값은 .999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그림 1
전체(n=203)에서 추정된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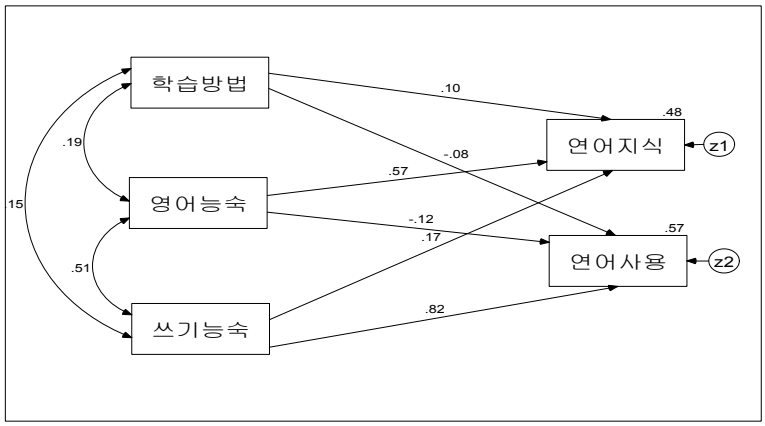

표 6

전체(n=203)에서 추정된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학습방법	→	연어지식	.10*
	→	연어사용	-.08
영어능숙도	→	연어지식	.57**
	→	연어사용	-.12*
영작문 능력	→	연어지식	.17**
	→	연어사용	.82**

** p<.01 * p<.05

표 6에 의하면, 학습방법은 연어지식에 .10, 연어사용에 -.08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능숙도는 연어지식에 .57, 연어사용에 -.1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작문 능력은 연어지식에 .17, 연어사용에 .8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어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어능숙도이며, 연어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작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영어 연어지식과 연어사용능력을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일반적인 영어능숙도와 영작문 능력을 기준으로 한 연어지식과 연어사용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연어지식과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일반적인 영어능숙도에 따른 연어지식에 차이가 있었다. 영어능숙도가 높을수록 연어지식 표현력과 이해력 모두 높았다. 둘째,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에 따라 연어지식에 차이가 있었다.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이 높을수록 연어지식 표현력과 이해력 모두 높았다. 셋째,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에 따라 영작문 중 연어사용 총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영작문 능력이 높을수록 연어지식 사용 빈도가 많았다. 넷째, 학습방법, 영어능숙도, 영작문 능력이 연어지식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연어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어능숙도이며, 연어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작문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가 영어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연어지식은 학습자의 언어능력의 일부이므로 학습자의 언어수준에 따른 연어학습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연어지식 및 연어사용능력은 영작문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어지도가 수반되어야 한

다. 학습자의 능숙도 수준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학습되어져야 할 연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한다. 셋째, 비록 어휘적 연어에 대한 언어학적 범주가 더 명확히 규명되어야하지만 외국어학습의 요목에 연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 이외에도 단어의 결합가능성을 아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연어에 대한 연구는 어휘학습에 대한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어습득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보다 많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휘적 연어이외에 문법적 연어에 관한 통합적 연구도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쓰기 자료 이외에 말하기 자료를 활용한 좀 더 통합적인 연어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짐에 따라, 주로 영어로 된 자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주력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도 영어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에 이를 수 있도록 연어에 대한 더 이해력있는 정보와 자료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학습자는 스스로 연어지식을 향상시켜 실제 사용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혁승. (2000). 사전과 코퍼스: naked eye의 연관관계(collocation)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6*(1), 161-180.

이현우, 이소영. (2004).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로서의 공인 영어 표준화시험 타당도. *영어어문교육, 10*(3), 191-210.

Bahns, J. (1993). Lexical collocations: A contrastive view. *ELT Journal, 47*(1), 56-63.

Bahns, J., & Eldaw, M. (1993). Should we teach EFL students collocations? *System, 21*(1), 101-114.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97).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Carter, R., & McCarthy, M. (1988).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Coady, J., & Huckin, T. (1997).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wie, A. P. (1981). The treatment of collocations and idioms in learners'

dictionaries. *Applied Linguistics, 2*(3), 223-235.

Cruse, D. A.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rghal, M., & Obiedat, H. (1995). Collocations: A neglected variable in EFL. *IRAL, 33*, 315-331.

Firth, J. R. (1957).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1930-1955. In J. R. Firth (Ed.),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pp. 1-32). Oxford: Philological Society.

Gabrys-Biskup, D. (1992). L1 influence on learners' renderings of English collocations: A Polish/German empirical study. In P. Arnaud & H. Béjoint (Eds.), *Vocabulary and Applied Linguistics*. (pp. 85-93). London: Macmillan Academic and Professional Ltd.

Gairns, R., & Redman, S. (1986). *Working with words: A guide to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tsaki, C. (1999). *Second language lexical acquisition: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ollocational knowledge*. Bethesda: International Scholars Publications.

Halliday, M.,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Hill, J. (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M. Lewis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pp. 47-69).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Howarth, P. (1998). Phraseology an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Applied Linguistics, 19*(1), 24-44.

Kim, N. B. (2004). A collocational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suggestions for collocation instruc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3), 41-66.

Lewis, M. (2000).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Nation,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tinger, J. R., & Decarrico, J. S. (1992). *Lexical phrases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esselhauf, N. (2003) The use of collocations by advanced learners of English and some implications for teaching. *Applied Linguistics 24*(2), 223-242.

Omaggio, A. (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3rd Ed.) Boston: Heinle & Heinle.

Park, S. H. (2003). *Lexical collocation use by Korean EFL college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chmitt, N. (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nclair, J. M.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Zimmerman, C. (1997). Historical trends in second language vocabulary instruction. In J. Coady & T. Huckin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pp. 5-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 록

< Collocation Test >

다음은 50문항의 연어시험입니다. 각 문장 속의 *밑줄 친 단어 결합이 적절한지(acceptable) 부적절한지(unacceptable)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빈칸에 ✓표를 하세요. 만약 부적절하다면 빈칸에 적절한 *한 단어*를 쓰세요.

예: **동사** + 명사

* I didn't **do** my homework. ☑ 적절 ☐ 부적절 ( )
* It's time to **eat** your medicine. ☐ 적절 ☑ 부적절 (take)

(1) **동사** + 명사

1. Let's **play** bowling. ☐ 적절 ☐ 부적절 ( )
2. I have to **solve** this stress. ☐ 적절 ☐ 부적절 ( )
3. Susan wants to **lose** weight. ☐ 적절 ☐ 부적절 ( )
4. I want to **open** a bank account. ☐ 적절 ☐ 부적절 ( )
5. Will you **take** the phone for me? ☐ 적절 ☐ 부적절 ( )
6. To **say** the truth is very difficult. ☐ 적절 ☐ 부적절 ( )
7. It is difficult to **break** a bad habit. ☐ 적절 ☐ 부적절 ( )
8. If you **do** a crime, you should go to jail. ☐ 적절 ☐ 부적절 ( )
9. How can I **get** free access to the library? ☐ 적절 ☐ 부적절 ( )
10. They told the cab driver to **have** the change. ☐적절 ☐부적절 ( )

(2) **형용사** + 명사

11. I like **strong** coffee. □ 적절 □ 부적절 ( )
12. I have a **bad** headache. □ 적절 □ 부적절 ( )
13. He speaks in **broken** English. □ 적절 □ 부적절 ( )
14. Eric and Bob are **much** drinkers. □ 적절 □ 부적절 ( )
15. You are making a **large** mistake. □ 적절 □ 부적절 ( )
16. She was robbed in **bright** daylight. □ 적절 □ 부적절 ( )
17. I can't speak. I've got a **sore** throat. □ 적절 □ 부적절 ( )
18. He has a **firing** ambition to be a doctor. □ 적절 □ 부적절 ( )
19. **Great** rain has been forecast for Sunday. □ 적절 □ 부적절 ( )
20. Millions of stars are invisible to the **bare** eye. □적절 □부적절 ( )

(3) 명사 + **동사**

21. I saw the sun **fall** in the west. □ 적절 □ 부적절 ( )
22. Does school **open** at 8 o'clock? □ 적절 □ 부적절 ( )
23. I felt the bee **bite** my right hand. □ 적절 □ 부적절 ( )
24. My passport will **end** in a month. □ 적절 □ 부적절 ( )
25. The shock had made my heart **bea**t faster. □적절 □부적절 ( )
26. An active volcano may **explode** at any time. □적절 □부적절 ( )
27. The temperature will **drop** below freezing tonight.□적절□부적절 ( )
28. If prices **increase** further, the farmers will starve.□적절□부적절 ( )
29.Two results **tell** that there is no cause for concern.□적절□부적절 ( )
30.Major economic changes will **occur** in a short time.□적절□부적절 ( )

(4) **부사** + 형용사

31. This is **terribly** important. □ 적절 □ 부적절 ( )
32. She is **completely** beautiful. □ 적절 □ 부적절 ( )
33. The staff is **highly** experienced. □ 적절 □ 부적절 ( )
34. John is **deeply** absorbed in his book. □ 적절 □ 부적절 ( )
35. Both options are **strongly** impossible. □ 적절 □ 부적절 ( )
36. The written test was **perfectly** difficult. □ 적절 □ 부적절 ( )
37. That flight is **absolutely** booked already. □ 적절 □ 부적절 ( )
38. He was **bitterly** hurt in the car accident. □ 적절 □ 부적절 ( )
39. Organic foods are now **broadly** available. □ 적절 □ 부적절 ( )
40. I'm **awfully**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적절 □부적절 ( )

(5) 부사 + 동사

41. I very like English. □ 적절 □ 부적절 ( )
42. I horribly agree with him. □ 적절 □ 부적절 ( )
43. I hard know how to explain it. □ 적절 □ 부적절 ( )
44. I sincerely hope it will succeed. □ 적절 □ 부적절 ( )
45. We powerfully appreciate your help. □ 적절 □ 부적절 ( )
46. She willingly accepted my apology. □ 적절 □ 부적절 ( )
47. The school has considerately changed. □ 적절 □ 부적절 ( )
48. Do they clearly understand its meaning? □ 적절 □ 부적절 ( )
49. I extremely forgot to give you the letter. □ 적절 □ 부적절 ( )
50. She has heavily criticized the government. □ 적절 □ 부적절 ( )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김윤정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부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Tel: (051) 620-6820
Fax: (051) 628-2791
Email: uzzz815@hanmail.net

Received in Oct., 2005
Reviewed by Nov., 200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 2005